

국어 영역

11회

성명	
----	--

수험 번호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물빠진 색감에 편견있습니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 문형(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공통과목 및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확인하고,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공통과목
 - 독서
 - 문학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시선국어연구소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비정상적인 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한 경우 중 하나를 악성 종양, 즉 암이라 한다. 모든 세포가 암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많은 세포로 구성된 생물일수록 암 사망률이 높아야 한다. 그러나 신체 크기와 암으로 인한 사망률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는데, 이를 폐토의 역설이라 한다. 폐토의 역설은 ㉠ 종양 억제와 ㉡ 중복 종양의 두 가지 가설로 설명될 수 있다.

많은 세포를 가진 동물은 진화 과정을 통해 추가적 종양 억제 유전자나, 세포 손상 복구 시스템을 강하게 발전시킨다. 이러한 방식 중 세포 내부의 p53을 통한 화학적 복구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암 억제 단백질인 p53은 암 억제 유전자인 TP53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는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분열하여 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에, TP53에 문제가 발생하면 암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p53은 흔히 파수꾼이라 불린다. 이는 세포 내에서 DNA 손상이 발생하면 손상을 감지해 세포 주기를 멈추고 세포를 복구하거나 자멸사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세포의 DNA가 손상되면, p53이 축적되고 활성화된다. 활성화된 p53은 우선 p21을 비롯한 여러 단백질을 세포 내부에 증가시켜 세포 주기를 정지시킨다. 세포 주기가 성공적으로 정지되면 세포 복구 기전이 활성화되어 세포 복구를 시도한다. 손상된 세포가 회복되면 p53은 비활성화되고 세포 주기가 다시 진행되어 세포 분열이 재개된다. 만약 세포의 손상이 극심하여 복구가 실패했다면 p53은 세포 자멸사를 유도한다. p53은 주변 조직에 큰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세포의 사멸을 촉진하는 단백질을 발현해 내부에서 세포를 파괴하며 파괴된 세포의 내부의 단백질 등 구성 요소가 다른 세포로 흡수된다. p53에 문제가 발생하면 정상적인 세포 주기 정지와 복구, 사멸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손상된 DNA를 가진 세포가 무분별하게 증식해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코끼리는 이러한 과정들이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행되어 유전자 손상 감지 및 세포 자멸사 유발이 더욱 활발하다. 몸집이 커지고 수명이 길어지는 과정에서 암 발생은 생존에 있어 치명적이기에, 종양 억제의 발달이 이루어진 것이다.

드물게 한 자리에서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악성 종양이 충돌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암세포는 불안정하기에, 끊임없이 돌연변이를 축적하며 종양 내부에 하위 종양을 구성할 수도 있다. 폐토의 역설에서 하위 종양이 기존 종양의 성장을 막는 경우를 중복 종양이라 칭한다. 돌연변이된 하위 종양은 영양을 더욱 효율적으로 흡수하거나 증식 속도가 빨라지는 등 생존에 유리한 특성을 지닐 수 있다. 이러한 하위 종양과 기존 종양의 경쟁이 발생하면 암의 성장이 저해된다. 하나의 종양이 모든 영양을 흡수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개의 독립적인 종양이 서로 영양을 흡수하려는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반대로 하위 종양의 성장이 저해되는 경우도 관찰되며 하위 종양이 기존 종양에 기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기존의 종양이 공급받던 성장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가로채도록 변이되었다면 기존 종양의 생존과 성장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끝없이 반복될 수 있으며 종양의 크기가 일정 수준 이상 커지기 어렵게 한다. 포유류의 세포의 크기는 비슷하기에 생물의 몸집이 커질수록 동일한 크기의 악성 종양이 미치는 영향은 줄어든다. 따라서 중복 종양은 대형 동물의 악성 종양이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한다.

1. 밑줄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체 크기와 악성 종양 발생률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는 것을 폐토의 역설이라 한다.
- ② 암 억제 유전자는 세포의 이상이 발견되면 세포 주기를 정지시킨다.
- ③ 세포 자멸사는 세포 내부에서 진행되며 주위 세포에 큰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진행된다.
- ④ 기존 종양이 지닌 생존에 유리한 특성은 하위 종양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
- ⑤ 생물의 몸집이 작아질수록 동일한 크기의 악성 종양이 미치는 영향이 증가한다.

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 과정에서 세포 주기가 진행되고 있다면 p53이 재활성화된다.
- ② ㉠의 과정에서 p21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세포 주기는 정지되지만 세포의 복구나 사멸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 ③ ㉠의 과정에서 대상 세포가 자멸했다면 세포 내부의 p21은 다른 세포로 흡수된다.
- ④ ㉡의 과정에서 하위 종양이 생존에 불리한 특성을 갖는다면 암의 발병률이 줄어든다.
- ⑤ ㉡의 과정에서 암의 하위 종양이 두 개인 경우보다 세 개인 경우가 해당 포유류의 생존에 불리하다.

3. p53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포의 손상을 세포 외부의 신호를 통해 감지한다.
- ② 손상된 세포가 회복되면 이후 주변 세포로 흡수된다.
- ③ 여러 단백질에 의해 만들어지며 단백질을 활성화한다.
- ④ 복구 불가능한 손상 세포의 사멸을 유도한다.
- ⑤ 세포 내에서 비활성화되어 세포 주기를 정지한다.

4. 윗글을 읽고 <보기>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다음은 가상의 생물 (가)~(다)는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다고 알려졌으며 아래는 이를 설명하는 각각의 세 가지 연구이다.

연구 (가): p53과 동일한 역할의 독립된 단백질이 존재한다.
연구 (나): 세포 주기 중단 단백질이 효율적으로 발현된다.
연구 (다): 세포의 크기가 인간보다 현저히 작을 것이다.

- ① (가)는 (나)와 달리 효율적인 손상 감지로 악성 종양의 생성을 억제한다고 설명하였군.
② (나)는 (다)와 달리 세포 내부의 화학적 기전으로 종양을 억제한다고 설명하였군.
③ (다)는 (가)와 달리 세포의 크기로 인해 암세포의 발현이 억제된다고 설명하였군.
④ (가)와 (나)는 모두 손상된 세포의 복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군.
⑤ (다)와 (나)는 A의 신체 크기와 암 발병률 사이는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설명하였군.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느 집이나 문이 있다
우리 집의 문 또한 그렇지만
어느 집의 문이나
문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잘 열리고 닫힌다는 보장이 없듯

문은 열려 있다고 해서
언제나 열려 있지 않고
닫혀 있다고 해서
언제나 닫혀 있지 않다

어느 집이나 문이 있다
어느 집의 문이나 그러나
문이라고 해서 모두 닫히고 열리리라는
확증이 없듯

문이라고 해서 반드시
열리기도 하고 또 닫히기도 하지 않고
또 두드린다고 해서 열리지 않는다

어느 집이나 문이 있다
어느 집이나 문은
① 담이나 벽을 뚫고 들어가
담이나 벽과는 다른 모양으로
자리 잡는다

담이나 벽을 뚫고 들어가
담이나 벽과 다른 모양으로
자리 잡기는 잡았지만
담이나 벽이 되지 말라는 법이나
담이나 벽보다 더 든든한
문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 오규원, 「문」-

(나)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
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건잠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님은 갔지만 나는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① 사랑의 노래는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다)

어머니는 삼십대의 젊은 나이로 이곳에 유학을 정했다. **나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어머니에 대한 연민으로 가슴을 앓아왔다.
그 아픈 밑바닥에는 존재에 대한 애착과 삶의 그늘, 지금쯤이면
기쁨을 찾아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보상 같은 환상이 깔려 있었다.
② 때문에 어머니만 떠올리면 항상 슬픔이 묻어있는 회색빛
공간에 갇힌 기분이었다.1

③ 그런데어제는 그렇지 않았다. 바가지를 얹어놓은 듯한

한 평 남짓한 ㉠ 어머니의 무덤이 그렇게 평화롭고 따뜻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을 벗어던진 나목들의 자유처럼, 칙칙하고 고뇌스럽던 삶의 찌꺼기를 벗어던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황량하게 잠들어 있는 들녘의 망각처럼. 어머니의 정지된 세월이 무척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나는 집에 돌아와서도 **새롭게 다가선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며 밤잠을 설치고 말았다. 어찌하여 가련한 어머니의 모습이 행복한 모습으로 반전되었을까 하는 내 **의식의 질문** 때문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만한 이유가 없었다. 굳이 따지자면 무언가 잃고 있는 내 외로움 때문이라 할까. ㉡ 세월을 잃어가고, 젊음을 잃어가고, 가슴을 뜨겁게 했던 사람들을 잃어가고,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떠날 것이라는 초조감 때문일까. 그것이 내일인지 아니면 일 년 후가 될지, 오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내 옆을 떠나간 것처럼 나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니까.

나는 요즘 그런 분명한 사실을 엄숙히 맞이하기 위해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근간에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된 건 아니다. **오십대 후반부터** 찔찔이 생각하면서 **서서히 버리는** 연습을 한 것이다. ㉢ 다만 그 때의 연습이 여유 있는 행동이었다면 지금은 진지하면서도 절박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일거리가 있는 사무실을 벗어나 이렇듯 하늘과 바람, 햇살과 나무, 시들어 있는 들풀과 허무가 깔려 있는 먼 들판길을 산책하는 것이다.

(중략)

이렇게 나는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아무런 미련 없이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마음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그래, 언제쯤이면 사람이 없어도 외롭지 않고, 어둠 속에 갇혀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도 당당할 수 있고, 사랑이니 영광이니 행복이니 하는 것들을 한갓 **휴지 조각처럼 무심히 던질** 수 있을까. ㉣ 그러기 위해서 나는 또 이 길을 얼마나 더 많이 걸어야 할 것인가.

- 안재진, 「이별 연습」-

5.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동일한 문장을 반복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나)는 색채어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모두 대상의 열거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다)는 화자의 경험을 서술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는 통사적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생성하고 있고, (다)는 비유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해 표현하고 있다.

6.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를 통해 화자가 처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황금의 꽃’이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가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날카로운’이라는 감각적 표현을 통해 ‘님’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뜻 밖의 일’과 ‘놀란 가슴’을 통해 화자에게 이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들어부었습니다’라는 표현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7.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문’은 열림과 닫힘의 속성을 동시에 지닌 존재이다. 이에 대하여 (가)는 일상 세계에 어긋나는 상황을 제시하여 시상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독자는 일상적으로 쓰이던 언어의 의미를 의심하고, 상식과 어긋나게 쓰인 언어의 진의를 파악하고자 노력하게 되며, 단어의 대립과 긴장 사이에서 일정한 맥락을 발견할 수도 있다. 이때, 독자는 작가가 제시한 현실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파악할 수 있다.

- ① ‘문’이 ‘반드시 열리기도 하고 또 닫히기도 하’진 않는다는 것에서, 상식과 어긋나게 쓰인 언어의 진의를 파악해 볼 수 있겠군.
- ② ‘문이라고 해서 모두 닫히고 열리리라는 확증이 없’다는 것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던 언어의 의미를 의심해 볼 수 있겠군.
- ③ ‘문’이 ‘두드린다고 해서 열리지 않는다’는 것에서, 일상 세계에 어긋나는 상황을 제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문’이 ‘열려있다고 해서 언제나 열려 있지 않’으며 ‘닫혀 있다고 해서 언제나 닫혀 있지 않다’는 것에서, 단어의 대립과 긴장 사이에서 일정한 맥락을 발견할 수 있겠군.
- ⑤ ‘문’이 ‘담이나 벽을 뚫고 들어가’서 ‘담이나 벽이 되’거나 ‘담이나 벽보다 더 든든한 문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에서, 작가가 제시한 현실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파악할 수 있겠군.

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지금껏' 어머니에 대해 '나'가 느낀 감정을 드러내는 말이다.
- ② ㉡: '나'가 어머니에 대해 '어제' 느낀 감정은 이전까지 느낀 것과 다름을 암시하고 있다.
- ③ ㉢: '새롭게 다가선 어머니의 모습'의 이유인 상실에 의한 나의 외로움에 대하여 내가 상실하고 있는 대상들을 열거하고 있다.
- ④ ㉣: '서서히 버리는' 것을 '오십대 후반' 때보다 더 진지하고 절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자유를 느끼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휴지 조각처럼 무심히 던'지는 마음이 꾸준히 필요함을 서술하고 있다.

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시적 대상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② ㉡은 '님'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님'을 사랑하고 있는 '나'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③ ㉢은 '나'가 어머니에 대해 이전과 다른 감정을 느끼는 장소이다.
- ④ ㉣은 '님'과 일체가 되는 대상으로, '님'에 대한 '나'의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은 '나'가 '의식의 질문'을 던지게 된 원인이 발생한 장소이다.

10. <보기>를 참고하여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나)와 (다)의 화자는 이별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화자가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어 재회에 대한 희망을 품는 것에서, (다)에서는 화자가 죽음을 인지하여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죽음을 엄숙히 받아들이려는 것에서 이러한 태도가 드러난다. 또한 (나)는 대비를 통해 자신의 이별을 강조하고 과장된 표현을 통해 '님'과의 사랑을 강조하는 한편, (다)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경험을 통해 능동적인 태도의 함양에 박차를 가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 ① (나)의 '옛 땀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 갔습니다.'를 통해서 화자는 과거와 현재의 자신의 상황을 대비하여 자신의 이별을 강조하고 있군.
- ② (다)에서 '어머니의 무덤'을 방문하고 '새롭게 다가선 어머니의 모습'을 인지한 것으로 보아 특정한 장소에서 인물에 대한 정서가 변화하는 경험을 하였군.
- ③ (나)의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와 '님의 얼굴에 눈떨었습니다.'으로 보아 과장된 표현을 통해 '님'과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군.
- ④ (다)에서 '나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서서히 버리는 연습'을 하는 것을 통해 화자는 죽음을 인지하여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나)에서 화자가 '슬픔의 힘'을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붓는 모습에서 재회의 희망을 품고 있음을, (다)에서 '어머니의 정지된 세월이 무척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에서 죽음을 받아들일 힘을 얻었음을 알 수 있군.